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밑줄 친 어휘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고가에 대해서는 너무 괴념치 않는 것이 좋다.
- ② 필요한 부부만 책에서 발체해서 발표할 수 있다.
- ③ 고집대로만 했다간 문화제 계획마저도 와해될 판이다.
- ④ 나는 설명서에서 그 기계의 제원을 꼼꼼히 확인하였다.

01 ④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한글맞춤법

④의 '제원(諸元: 諸 모두 제/元 으뜸 원)'은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를 뜻하며, 문맥에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괴념 → 괴념(掛念)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음. [비슷한 말] 계념(繫念)·괘심(掛心)·괘의(掛意).
- ② 발체 → 발취(拔萃) 책, 글 따위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 뽑아냄. 또는 그런 내용. [유] 발취(拔取), 발초(拔抄)
- ③ 와해 → 와해(瓦解) 기와가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을 이르는 말.
[참고] 와해(蛙醃) 개구리의 다리에 붙은 살로 담근 젓. [같은 말] 개구리젓.

2.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이 적절한 것은?

- ① (남편의 형에게) 큰아빠, 전화 받으세요.
- ② (시부모에게 남편을) 오빠는 요즘 무척 바빠요.
- ③ (남편의 누나에게) 형님, 어떤 것이 좋을까요?
- ④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02 ③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언어예절

③ 남편의 누나는 '형님'으로 부른다.

참고로,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을 아우르는 말이다. 남편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으로 부른다. '서방님'의 경우 보통 손아래 사람 (결혼한 시동생,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 ① (남편의 형에게) 큰아빠 → 아주버님.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으로 호칭한다. 남편의 형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주버님' 하고 불러야 한다. '큰아버지', '큰아빠'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형을 부르는 말이므로 써서는 안 된다.
참고로, 시댁 쪽 사람에게는 시부모처럼 남편의 형보다 윗사람일지라도 '아주버님'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친정 쪽 사람에게는 '님'을 붙이지 않고 '시아주버니'나 '○○ 큰아버지'라고 지칭한다.
- ② (시부모에게 남편을) 오빠 → 아비, 아범
남편을 지칭할 때는 누구에게 가리키는가에 따라 다르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는 '아비' 또는 '아범'이라고 한다. 친정 부모에게는 남편의 성을 넣어 '○ 서방'이라고 하면 무난하다.
남편의 형제들에게는 그들을 기준으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시아주버니와 손위 시누이에게는 '동생', 시동생에게는 '형(님)', 손아래 시누이에게는 '오빠'라고 함이 자연스럽다. 동서들이나 시누이 남편에게는 '그이', '○○ 아버지' '○○ 아빠'로 하면 된다.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우리 남편', '애 아버지', '애 아빠'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의 직함을 붙여 '우리 사장', '우리 선생', '우리 부장' 등으로 지칭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애 아버지', '바깥양반', '바깥사람'을 쓴다.
- ④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부인 → 집사람, 안사람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마누라'는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므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집사람', '안사람'은 윗사람이나 남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겸양의 표현으로 쓴다. 손아래 동기에게는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지칭하면 아내를 낮추는 의미가 되므로 손아래 동기의 처지에서 부르는 말로 지칭하는 것이 옳바르다. 또 '처'는 주로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지칭할 때 자연스럽다. 가정 내 동기 사이에서 '처'를 사용하면 남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색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어머', '어미', '집사람', '안사람', '○○[자녀] 엄마'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집사람', '안사람'을 쓴다. 아내를 신혼 초에 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하므로 이름을 사용하여 '○○ 씨'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기와 동기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매제)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자녀] 엄마'를 쓴다. 손아래인 남동생과 여동생에게는 '○○[자녀] 엄마'와 함께 각기 동생의 처지에 서서 '형수'와 '언니', '새언니', '올케', '올케언니'로 지칭한다.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다.

며느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는 '어머니'이다. 또 '시아머니'라고 지칭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쓰임이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위에게는 '장모'라고 지칭한다.

친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나 아내의 친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에는 '집사람', '안사람', '애 어머니', '애 엄마', '○○[자녀] 엄마'로 쓴다. '마누라'는 아내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고 '안식구', '내자'는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고 앞으로 더욱 쓰이지 않을 말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3. 다음 글에서 칸트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칸트는 계몽이란 인간이 자신의 과오로 인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했다. 이때 '미성년 상태'는 타인의 지도 없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이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일은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계몽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 계몽으로서 각자 스스로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서 이성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적 계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상태는 편하다. 이 상태의 개인은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오는 수고스러움을 겪지 않아도 되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저지를지 모르는 실수의 위험을 과장해서 생각한다. 한 개인이 실수에의 두려움으로 인해 미성년 상태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면, 편안함에 대한 유혹과 실수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며 스스로를 계몽하기는 힘들다.

대중 일반의 계몽은 이보다는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어느 시대 에나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독립적인 정신의 사상가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들은 편안함에 안주하려 하고 두려움의 방패 뒤에 도피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 자각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계몽 정신은 자연스레 널리 전파될 것이고, 사람들은 독립에의 공포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성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칸트는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해 필요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 일컫는다. 이성의 사용은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으로 구분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각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중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 ① 개인적 계몽을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 불렀다.
- ③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해야 한다.
- ④ 개인적 계몽을 이룬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독립에 대한 공포심에 빠지게 된다.

03 ④ 비문학>내용 확인하기

④ 셋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계몽 정신은 자연스레 널리 전파될 것이고, 사람들은 독립에의 공포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성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④의 설명을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둘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넷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3]출전: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

1. 해제: 이 글은 칸트의 저서 “계몽이란 무엇인가”의 내용에 따라 칸트가 생각하는 계몽의 개념을 설명하고 계몽을 개인적 계몽과 대중 일반의 계몽으로 나눈 후, 대중 일반의 계몽에 필요한 이성의 사용을 다시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으로 나누어 이성의 공적 사용에 필요한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 주제: 계몽의 개념과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한 이성의 공적 사용에서의 자유의 필요성
3. 흐름 파악하기
 - 첫째 단락: 칸트가 생각한 계몽의 개념
 - 둘째 단락: 계몽의 두 양상 중 개인적 계몽
 - 셋째 단락: 계몽의 두 양상 중 대중 일반의 계몽
 - 넷째 단락: 이성의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

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① 계절의 순환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자각하고 있군.
- ② 결별의 슬픔을 자신의 영혼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고 있군.
- ③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지적 자세를 엿볼 수 있군.
- ④ 흩어져 떨어지는 꽃잎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군.

04 ② 문학>현대문학>현대시>종합적 감상

② 이 시의 화자는 꽃이 지는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이 끝났을 때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꽃이 진다는 것은 상실이나 허무가 아니라 더 큰 성숙이나 만남을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꽃이 저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이별을 겪고 나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마지막 연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이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봄 한철-무성한 녹음(여름)-가을’로 이어지는 계절의 순환은 나타나 있으나 자연의 위대함을 자각한 것은 아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나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듯이 더 높은 차원의 영혼의 성숙이 가능해진다고 말함으로써 삶의 보편적 측면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3연에서 ‘지금은 가야 할 때’라는 구절에서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④ ‘낙화(꽃이 지는 것)’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낙화는 새로운 삶을 위한 성숙한 결별의 의식이다.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한 표현이 아니다.

※[문4]출전: 이형기, 「낙화」

1. 해제: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순환을 인간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삶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꽃이 지는 모습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이 끝났을 때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꽃이 진다는 것은 상실이나 허무가 아니라 더 큰 성숙이나 만남을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꽃이 저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이별을 겪고 나서 정신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 핵심정리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2) 성격 : 역설적, 의지적, 사색적, 독백적
- 3) 구조 :
 - 1연 : 낙화의 아름다움,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이의 아름다움
 - 2연 : 낙화, 사랑하는 대상의 소멸
 - 3연 : 낙화, 결별에 대한 축복
 - 4~5연 : 낙화, 청춘의 꽃다운 소멸
 - 6연 : 아름다운 헤어짐
 - 7연 : 이별의 슬픔을 극복한 정신적 성숙
- 4) 주제 : 성숙과 슬픔을 함께 한 사랑의 결별, 이별의 아픔을 극복한 성숙한 삶의 추구
- 5) 특징 :
 - ① 자연 현상에서 삶의 이치나 섭리를 발견하고 역설적 표현으로 중심시상을 표현하고, 의인화를 통해 자연에서 깨달음을 이끌어 냄
 - ② 이 작품에서 자연 현상은 '개화 - 낙화 - 결실'의 단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간사는 '만남 - 헤어짐 - 성숙'의 단계로 제시되고 있다. '개화의 낙화',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대립적 내용이며, 이를 통해 나온 '결실'과 '성숙'은 바람직한 결과이므로, 이 작품 속에는 변증법적 논리가 있다.

5.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일이 얹히고 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 ②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 밖에 없다.
- ③ 그는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 ④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은 속절 없는 짓이었다.

05 ③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띄어쓰기

③ '정처'와 '없이'는 각각의 단어이므로 띄어 쓴다. 여기서 '정처(定處)'는 '정해진 장소'라는 뜻이므로, '정처 없이'는 '정해진 곳이 없이'라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얹히고 설켜서 → 얹히고설켜서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이다./관계, 일, 감정 따위가 이리저리 복잡하게 되다.'라는 뜻의 '얹히고설키다' 동사로서, 한 단어이다. 참고로, '얹키고설키다, 얹히고섞히다'는 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② 너 밖에 → 너밖에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밖에'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참고로, '밖에'는 보조사인 '밖에'가 있고 명사 '밖[外]'에 조사 '에'가 결합한 '밖에'가 있다. 보조사일 경우에는 앞말에 붙여 쓰고 명사일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쓴다. "대문 밖에 누가 왔다."의 '밖에'는 '밖[外]'을 의미하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보조사 '밖에'와 명사 '밖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사 '밖에'가 쓰일 때는 서술어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④ 속절 없는 → 속절없는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뜻의 '속절없다'는 형용사로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참고] '있다', '없다'가 붙은 합성어

'있다', '없다'는 원칙적으로 띄어 써야 한다. 하지만 명사나 불규칙적 어근 뒤에 '있다'나 '없다'가 결합해 한 단위로 쓰이는 합성어는 붙여 쓴다.

- 어김없다: ㉠어기는 일이 없다. ㉡틀림이 없다
- 틀림없다: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다
- 여부(與否)없다: 조금도 틀림이 없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얼없다: 조금도 틀림이 없다
- 외상없다: 조금도 틀림이 없거나 어긋나지 않다
- 하릴없다: ㉠조금도 틀림이 없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 할수없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매우 가난하여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 움나위없다: ㉠꼼짝할 만큼의 적은 여유도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 올데갈데없다: ㉠사람이 머물러 살 곳이나 의지할 곳이 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다른 여지가 없다
- 갈데없다: 오직 그렇게밖에는 달리 될 수 없다
- 바이없다: ㉠어찌할 도리나 방법이 전혀 없다. ㉡비할 데 없이 매우 심하다
- 여지(餘地)없다: ㉠더 어찌할 나위가 없을 만큼 가차 없다. ㉡달리 어찌할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다
- 꼼짝없다: ㉠조금도 움직이는 기색이 없다. ㉡꼼짝없다. ㉢현재의 상태를 벗어날 방법이나 여지가 전혀 없다
- 속절없다: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 물של름없다: 물을 부어도 썰 틈이 없다. 조금도 빈틈이 없음을 비유.
- 빈틈없다: ㉠비어 있는 사이가 없다. ㉡허술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다
- 빠짐없다: 하나도 빠트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있다
- 간데없다: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사라지거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간곳없다.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다. ㉣영락없다(零落--)
- 온데간데없다: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 찾을 수가 없다. ㉣간데온데 없다
- 너나없다: 너나 나나 가릴 것 없이 다 마찬가지이다
- 닮음없다: 견주어 보아 같거나 비슷하다
- 상관없다(相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제 될 것이 없다. ㉢관계없다(關係--)
- 문제없다(問題--):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없다 | 어긋나는 일이 없다
- 일없다: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걱정하거나 개의할 필요가 없다
- 소용없다(所用--): 아무런 쓸모나 득이 될 것이 없다. ㉢쓸데없다
- 쓸모없다: 쓸 만한 가치가 없다
- 부질없다: ㉠대수롭지 아니하다. ㉡쓸모가 없다
- 형편없다(形便--): ㉠결과나 상태, 내용이나 질 따위가 매우 좋지 못하다. ㉡실망스러우리만큼 정도가 심하다
- 볼품없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초라하다
- 볼썽없다: 어떤 사물의 모습이 보기에 역겹고 보잘것없다
- 보잘것없다: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
- 하잘것없다: 시시하여 해 볼 만한 것이 없다 | 대수롭지 아니하다
- 멋없다: 격에 어울리지 않아 싱겁다
- 변함없다(變--): 달라지지 않고 항상 같다
- 그지없다: ㉠끝이나 한량이 없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 꾸밈없다: 숨기거나 속이는 데가 없이 정정당당하다
- 꾸밈없다: 가식이 없이 참되고 순수하다
- 숨김없다: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는 일이 없다
- 막힘없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방해받는 것이 없다
- 거침없다: 일이나 행동 따위가 중간에 걸리거나 막힘이 없다
- 허물없다: 서로 매우 친하여, 체면을 돌보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다
- 스스럼없다: 조심스럽거나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
- 염치없다(廉恥--): 체면을 차릴 줄 알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다
- 주책없다: 일정한 쯤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었다
- 무람없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
- 버릇없다: 어른이나 남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가 없다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본데없다: ㉠보고 배운 것이 없다. ㉡행동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데가 있다
- 난데없다: 갑자기 불쑥 나타나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 뜬금없다: 갑작스럽고도 엉뚱하다
- 느닷없다: 나타나는 모양이 아주 뜻밖이고 갑작스럽다
- 분별없다(分別--):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다. ㉡막되고 가림이 없다
- 시름없다: ㉠근심과 걱정으로 맥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 힘없다: ㉠기운이나 의욕 따위가 없다. ㉡힘이나 권세, 위력 따위가 없다
- 경황없다(景況--): 몹시 괴롭거나 바쁘거나 하여 다른 일을 생각할 겨를이나 흥미가 전혀 없다
- 엉터리없다: 정도나 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 어이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어처구니없다
- 터무니없다: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
- 어림없다: ㉠도저히 될 가망이 없다. ㉡너무 많거나 커서 대강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분수가 없다
- 세상없다(世上--): ㉠세상에 다시없다. ㉡비할 데 없다
- 유례없다(類例--): ㉠같거나 비슷한 예가 없다. ㉡전례가 없다
- 두말없다: ㉠이러니저러니 불평을 하거나 덧붙이는 말이 없다. ㉡이러니저러니 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다
- 인정사정없다(人情事情--): 인정을 베푸는 것도 없고 사정을 봐주는 것도 없다. ㉢무자비할 만큼 몹시 엄격하다
- 재미없다: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없다. ㉡신상에 좋지 아니하거나 해로운 일이 있게 되다
- 맛없다: ㉠음식의 맛이 나지 아니하거나 좋지 아니하다. ㉢재미나 흥미가 없다. ㉣하는 것이 싱겁다
- 밥맛없다: 아니꼽고 기가 차서 정이 떨어지거나 상대하기가 싫다
- 아낌없다: 주거나 쓰는 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다

6. 한자성어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임.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④ 점입가경(漸入佳境):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06 ② 한문>한자와 한자어>한자성어

②의 '방약무인(傍若無人)'은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성어이다.

- ① 결초보은(結草報恩) : 結 맺을 결/草 풀 초/報 갚을 보/恩 은혜 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뜻으로, 죽어 혼이 되더라도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무슨 짓을 하여서든지 잊지 않고 은혜에 보답함. 남의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사람에게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말.
-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 傍 곁 방/若 같을 약/無 없을 무/人 사람 인)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르는 말.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 切 끊을 절/齒 이 치/腐 썩을 부/心 마음 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 ④ 점입가경(漸入佳境) : 漸 점점 점/入 들 입/佳 아름다울 가/境 지경

경) ㉠ 가면 갈수록 경치가 아름다워진다는 뜻으로, 일이 점점 더 재미가 있음. ㉡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yellow: 옐로 | ㄴ. cardigan: 카디건 |
| ㄷ. lobster: 롱스터 | ㄹ. vision: 비전 |
| ㅁ. container: 콘테이너 | |

- ① ㄱ, ㅁ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ㅁ

07 ③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오래어표기법

ㄱ. [ou]는 '오'로 적는다. 따라서 '옐로(yellow)'는 바른 표기이다. 옐로우(x)

ㄴ. 앞을 단추로 채우는 스웨터를 일컬어, '카디건cardigan'이라 한다. 이 단어는 발음이 [ká : digən]이다. 가디건(x)

ㄹ. '외래어 표기법'에서 'ㅈ'이나 'ㅊ' 다음에 이중 모음을 적지 않는다. 따라서 '비전(vision)'은 바른 표기이다. 비전(x)

[오답 풀이]

ㄷ. 롱스터 → 랍스터(lobster), 로브스터(lobster)

바닷가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랍스터, 로브스터'가 바른 표기이다. 랍스타(X), 롱스터(X)

ㅁ. 콘테이너 → 컨테이너(container)

[ɔ]는 [o]와 구분 없이 '오'로 적는다. [ɔ] 소리는 우리말의 '어'와도 비슷하게 들리므로 '어'로 적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oncept[konsept], contents[kɔntents] 등은 '컨셉트', '컨텐츠'가 아니라 '콘셉트, 콘텐츠'로 적어야 한다. 반대로 영어의 철자에 이끌려 '어'로 적어야 하는 것들을 '오'로 잘못 표기하는 예들도 있다. 예를 들어 container[kənteɪnər], control[kəntrol] 등은 con-의 발음이 [kɔn]이 아니라 [kən]이므로 '콘테이너, 콘트롤'로 적어서는 안 되고, '컨테이너', '컨트롤'로 적어야 한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 사이에 일정한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철자가 같아도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위의 예에서처럼 똑같은 con-이 단어에 따라 [kɔn]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kən]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따라서 항상 발음 기호를 확인해서 외래어 표기를 해야 한다.

8. ㉠~㉣의 한자 병기가 옳지 않은 것은?

㉠열악(劣惡)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현실로 만든 그의 노력에 우리는 ㉡경의(敬意)를 표하였다.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귀감(龜鑑)이 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08 ③ 한문>한자와 한자어>한자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을 뜻하는 '태도'는 '態度(態 모습 태/度 법도(모양, 모습, 정도) 도)이다.

- ① ㉠ 열악(劣惡: 劣 못할 열/惡 악할(나쁘다, 더럽다, 못생기다. 추하다) 악) 품질이나 능력, 시설 따위가 매우 떨어지고 나쁨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② ㉠ 경의(敬意: 敬 공경 경/意 뜻 의) 존경하는 뜻.
③ ㉡ 태도(態度) → 태도(態度: 態 모습 태/度 법도(모양, 모습, 정도)도):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
[참고] 도(道: 길 도)
④ ㉢ 귀감(龜鑑: 龜 거북 귀/鑑 거울 감)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9. 밑줄 친 말의 의미에 대응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번 국경일에 국기를 단 집이 많았다. - 掲載
② 차에 에어컨을 달고 싶지만 돈이 없다. - 設置
③ 오늘의 음식 값은 장부에 달아 두세요. - 記錄
④ 그는 어디에 가든 친구를 달고 다닌다. - 帶同

09 ① 한문>한자와 우리말

①의 '게재(掲載)'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는 것이다. 문맥상 기(旗) 따위를 높이 거는 것을 뜻하는 '게양(揭揚)'이 적절하다.

- ① 게재(掲載: 掲 높이 들 게/載 실을 재)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
→ 게양(揭揚: 掲 높이 들 게/揚 날릴 양) 기(旗) 따위를 높이 걸. '닿', '올림'으로 순화.
② 설치(設置: 設 베풀 설/置 둘 치) ㉠베풀어서 둠. ㉡어떤 기계나 장치 등을 어느 곳에 달거나 매거나 붙이거나 하여 놓아두는 것
③ 기록(記錄: 記 기록할 기/錄 기록할 록)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④ 대동(帶同: 帶 띠(데리고 다니다, 붙여 다니다) 대/同 한가지 동)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거느려 함께 함.

10. 문맥에 따른 배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소중히 여기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나)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낮은 차원의 것이지만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한 것이다.
(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때까지 행복해지지 못한다.
(라)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만족하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노리는 사람보다는 얼마든지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마)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여전히 불안과 불행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 ① (나)-(라)-(가)-(다)-(마)

- ② (나)-(가)-(마)-(라)-(다)
③ (다)-(마)-(라)-(나)-(가)
④ (다)-(라)-(마)-(가)-(나)

10 ③ 비문학>집필과 퇴고>글의 순서

(다) '부자가 ~못하다'는 논제를 먼저 제시하고, (마)에서는 '~때문이다'의 구조로 (다)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어서 (라)에서는 역접 접속부사 '하지만'을 사용하여, (다), (마)에 대립되는 '차원 높은 행복'의 조건을 제시한 후 (나)에서는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을 설명한다. 그리고 다시 (가)에서 일반적인 결론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현실은 '타이타닉 호'라는 배뿐입니다. 타이타닉 호 속에는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습니다. (㉠) 선원은 엔진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안 되고, 배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계를 확실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각자 일상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 하는 사람이 현실주의자입니다.

누군가가 "엔진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비현실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 호라는 배는 전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진하지 않으면 저마다의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 퍼져 있는 현실주의는 바로 그러한 현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주의적인 경제학자가 타이타닉 호에 "전속력으로!"라는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이타닉 호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타이타닉 호가 전 세계라는 점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자의 논리도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타이타닉 호의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바깥에는 재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타이타닉 호의 비유가 갖는 한계를 알 수 있는데, 타이타닉 호의 경우는 하나의 빙산이 있고, 장래에 배가 거기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계 경제 시스템은 장래에 빙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차례차례 빙산에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 | | ㉠ | ㉡ | ㉢ |
|---------|------|------|---|
| ① 그리고 | 그러면 | 만약 | |
| ② 그리고 | 그렇지만 | 만약 | |
| ③ 예를 들면 | 그러면 | 말하자면 | |
| ④ 예를 들면 | 그렇지만 | 말하자면 | |

11 ④ 비문학>집필과 퇴고>접속어

문장의 접속어나 지시어를 찾는 문항은 앞, 뒤 문장의 연결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의 앞 문장에서는 타이타닉 호 속에 '일상사'가 있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선원의 일상사가 제시되므로 뒤 문장은 예시 문장이다. 따라서 ㉠에는 '예를 들면'이 적절하다.

㉡의 앞 문장에서는 타이타닉 호의 경우를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확대하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여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타이타닉 호의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듯, 세계 경제의 바깥에 있는 재난이 문제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앞, 뒤 문장은 역접의 관계이다. 따라서 ㉠에는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등이 적절하다.

㉡의 앞 문장은 우리들의 세계 경제 시스템은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이것은 차례차례 빙산에 부딪히고 있는 중이라고 연결하였다. 두 문장은 같은 의미의 문장이다. 따라서 ㉡에는 앞 문장에서 한 내용을 뒤 문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때 사용하는 환언 관계 접속어 ‘말하자면, 즉, 곧, 바꾸어 말하면’ 등이 적절하다.

12. ㉠~㉡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가 본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황사의 이동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황사는 탄산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봄철의 산성비를 중화시켜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또 황사는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 생물에게도 도움을 줬다. ㉡그리고 지금의 황사는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황사가 재앙의 주범이 된 것은 인간의 환경 파괴 ㉢덕분이다.

현대의 황사는 각종 중금속을 초함하고 있는 독성 황사이다. 황사에 포함된 독성 물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이옥신을 들 수 있다.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이며 기형아 출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성 물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황사를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정도도 훨씬 심해지고 있어 문제이다.

- ① ㉠은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②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그러므로’로 바꾼다.
- ③ ㉢은 어휘가 잘못 사용된 것이므로 ‘때문이다’로 고친다.
- ④ ㉣은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황사가’로 고친다.

12 ② 비문학>집필과 퇴고>고쳐쓰기

② ㉡의 앞 내용은 황사의 긍정적 측면의 진술이고, 이어지는 내용은 황사의 부정적 측면의 진술이다. 따라서 앞 문장의 내용과 반대되는 역접관계이므로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등이 적절하다. ‘그러므로’는 앞 문장의 내용과 뒤 문장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질 때 사용하는 접속어이다.

[오답 풀이]

① ㉠의 앞 문장을 보면 ‘황사가 본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로 진술하였으므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황사의 이동경로가 아니라 황사의 긍정적 측면이 연결되어야 한다.

③ ㉢의 ‘덕분’은 ‘배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자연히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문장에 쓴다. 한편, ‘때문’은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의미하는 말인데, 부정적 맥락과 긍정적 맥락에서 모두 쓰인다. 참고로, 그리고 ‘탓’은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 원망하거나 나무라는 일’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부정적 맥락에서 쓰인다.

문맥상 황사가 환경 파괴의 원인이므로 ‘때문’이나 ‘탓’으로 써야 한다.

④ 제시 문장의 서술어는



‘발생하고’와 ‘심해지고 있어 문제이다.’이다. 따라서 ‘황사를(목적어)’이 아니라 ‘황사가(주어)’로 고쳐야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다.

13. 다음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유럽의 18~19세기는 혁신적 지성의 열기로 가득 찬 시대였다. 혁신적 지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성숙과 더불어 서양 근대 사회의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수많은 개혁 사상과 혁명 사상의 제공자는 물론이요, 실천 면에서도 개혁가와 혁명가는 지성인 출신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이데올로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실의 모순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몸소 실천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사태는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근대 사회 성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혁신적 지성은 그 혁신적 성격과 개혁적 정열을 점차로 상실하고,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으로 변모하였다. 이는 근대 사회가 완성되고 성숙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며,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서구 사회에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이 필요 불가결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성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적하다.

만일 서구 사회가 현재에 안주하고 현상 유지를 계속할 수가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의 전면적인 침체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은 또한 불길한 몰락의 징조일지도 모른다.

현재의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는 누가 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역시 지성의 임무이다. 지성은 거의 영구불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창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현대의 지성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실을 비판하며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혁신적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 ①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이와 상반된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 ② 상호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③ 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를 밝히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④ 시대적 변천 양상을 살피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3 ④ 비문학>구상>글의 전개방식

각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단락에서는 유럽의 18~19세기에 혁신적 지성이 서양 근대 사회의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 둘째 단락에서는 20세기에는 혁신적 지성이 ‘그 혁신적 성격과 개혁적 정열을 점차로 상실하고,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 셋째 단락에서는 현재의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성의 임무라는 방향 제시를 하여,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었다.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따라서 제시 글의 전개방식은 '(혁식적 지성의) 시대적 변천 양상을 살피면서 (혁신적 지성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 ④의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주장은 셋째 단락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상반된 견해는 제시되지 않았다. ②의 '상호 대립된 견해'와 ③의 '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도 제시되지 않았다.

14.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 ① 시적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구도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상황 인식 - 객관적 서경 묘사 - 종교적 기원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14 ① 문학>고전문학>향가

마지막 9행~10행을 보면 불교적 득도를 통해 누이를 만날 것(재회)을 소망하는 현실 극복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② '반어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았다.
- ③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드러나 있으므로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바르지 않다.
- ④ 제시 작품은 '과거: 비극적 상황의 제시(1~4행)-현재: (인생의 무상감, 한탄, 5~8행)-미래(불교적 믿음을 통한 재회의 소망, 9~10행)'의 3단 구성이다.

※[문14]출전: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1. 해제: 이 작품은 '도술가'의 작가이기도 한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며 극복한 노래이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난 비유로 그려 내 향가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2. 핵심 정리
 - 1) 갈래 : 10구체 향가
 - 2) 성격 : 추모적, 애상적, 비유적, 종교적
 - 3) 제재 : 누이의 죽음
 - 4) 주제 :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 5) 의의 :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을 담은 작품으로 현전 향가의



백미로 곱힘.

6) 연대 : 신라 35대 경덕왕(8세기)

3. 시구의 비유적 의미

이 작품이 문학성이 뛰어난 서정 시가로 불리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 바람'은 젊은 나이에 요절한 누이의 죽음을,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한 가지'는 누이와 화자를 낳아 준 어버이를 뜻한다. 가지에 붙었던 잎이 일찍 떨어진 바람에 떨어지는 현상에 빗대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혈연 관계로 맺어졌던 이승의 인연도 죽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는 인식론적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4. '예(이승)'와 '미타찰'의 대비를 통해 본 화자의 태도

이 작품의 화자는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안타까움과 인생의 허무함과 같은 인간적인 정서를 느끼지만, 이러한 감정을 감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보인다. 그리하여 낙구에서 화자는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적 믿음으로 극복, 승화하며 수용하고 있다.

15.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아이의 말에 대한 엄마의 말이 '반영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적극적인 듣기의 방법에는 '요약하기'와 '반영하기'가 있다. 화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요약하기와 같은 재진술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편 반영하기는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 이입을 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청자의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보기>

아이 :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엄마 : _____

- ① 너, 치과에 가기 싫어서 그러지?
- ② 네가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 ③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는지가 궁금했구나.
- ④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치과에 가야겠지.

15 ② 비문학>말하기와 듣기>적극적인 듣기

제시 지문의 서령을 보면 '반영하기'는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 이입을 하여 의미를~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청자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치과 치료'보다 '시험이 중요하다'는 청자(아이)의 생각이 수용된 ②가 가장 적절하다.

16.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ㅁ/-음'은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어간 말음이 자음인 용언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② 그는 족음을 각오하고 일에 매달렸다.
③ 태산이 높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④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이 애국자다.

16 ③ 문법과 국어생활>현대문법>명사형 어미와 명사화 접사의 구별

명사화 접미사 ‘-ㅁ/-음’과 명사형 전성 어미 ‘-ㅁ/-음’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ㅁ/음, -기’ 등은 명사형 어미가 있고, 명사화 접사가 있다. 명사형 어미라면 품사가 용언이고, 명사화 접사라면 품사는 명사가 되고, 파생어가 된다. 이는 서술성의 유무에 따라 ‘명사형 전성어미’인가, ‘명사화 접미사’인가를 나눈다. 즉, 문장에서 서술의 의미를 가지면 ‘명사형 전성어미’로 쓰인 용언이고 서술의 의미가 없으면 ‘명사화 접미사’로 쓰인 명사이다. 그래서 어간 뒤에 ‘-ㅁ/음’이 붙은 용언이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ㅁ/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된다.

선지의 문장을 각각 홀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①, ②, ④는 격조사가 결합하여 ①은 주어의 기능, ②와 ④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므로 명사화 접사가 쓰인 것이다. 그러나 ③의 문장은 ‘태산이 높다.’의 형식으로 서술어 기능을 하므로 용언의 어간 뒤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이다.

- ① 그는 수줍음이 많다
② 그는 족음을 각오하다.
③ 태산이 높다.
④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다.

※명사화 접미사 ‘-ㅁ/-음’과 명사형 전성 어미 ‘-ㅁ/-음’을 구별

1. 어간+명사형 어미 = 용언
1) 서술어 기능
2) 부사어의 수식을 받음

2. 어간+명사화 접사= 명사
1) 서술어 기능을 하지 못함.
2)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님은 ㉠자기 자신을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당신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 ① ㉠과 ㉣은 모두 형님을 가리킨다.
② ㉠은 1인칭이고 ㉣은 2인칭이다.
③ ㉣은 ㉠보다 높임 표현이다.
④ ㉣은 ㉠과 달리 형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17 ② 문법과 국어생활>현대문법>대명사

㉠의 ‘자기’와 ㉣의 ‘당신(當身)’은 모두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 ① ㉠의 ‘자기’와 ㉣의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모두 형님을 가리킨다.

③ ㉢의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한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④ ㉣의 ‘그’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로 남자를 가리킬 때 쓴다.

[참고] ‘당신(當身)’의 의미

- ㄱ.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하오할 자리에 쓴다.
ㄴ.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ㄷ. 문어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ㄹ.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ㅁ. ‘당신’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향한 창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으며, 이러한 환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원근법적인 형태 묘사를 택했다. 그러나 1907년부터 피카소와 브라크는 전통적인 원근법의 관례를 버리고 리얼리티를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정물화에서 그들은 눈이 카메라 렌즈처럼 하나의 시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여 뇌가 어떻게 다양한 시점과 연속적인 시간에 걸친 시각적인 정보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지를 보여 주고자 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혁명적인 그림은 과거의 어떤 그림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두 화가는 모두 ㉣세잔의 작업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과거의 화가들은 일관된 원근법 체계를 이용해 그림에 안정성과 깊이감을 부여하고자 했으나, 세잔은 회화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불안한 각도로 면을 기울여 안정적인 정물화에 역동감과 긴장감을 부여했다. 그는 정물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고심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화면을 구성했다.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하여 세심하게 배열한 정물에 더욱 완벽한 시점을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세잔이 죽은 지 1년 후 파리에서 열린 세잔의 대규모 회고전은 피카소와 브라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피카소와 브라크는 즉각 세잔의 발상을 도입하여 초기 입체주의 회화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초기 정물화에 동시적인 시점의 결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사물의 형태를 파편화할 때까지 왜곡했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물의 주위를 걸어 다니며 각 단계의 다양한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그림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움직임의 감각을 만들어 냈다.

- ① ㉠과 달리 ㉣과 ㉣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② ㉣과 달리 ㉠과 ㉣은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한다.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③ ㉠과 달리 ㉡과 ㉢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회화의 목적이라 여긴다.

④ ㉠, ㉡, ㉢은 모두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한다.

18 ① 비문학>주제와 소재>관점의 비교

첫째 단락에서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을 사용하였고, 둘째 단락의 내용을 보면 ㉡(피카소와 브라크)은 ㉢(세잔)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으므로 둘의 관점은 같다. 아울러 단락의 마지막 무장에서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하였다는 내용에서 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한 것은 ㉠이다.

③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을 보면 ㉢(세잔)과 ㉡(피카소와 브라크)는 '회화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회화의 목적이라 여긴 것은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이다.

④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는 방식은 원근법인데, 첫째 단락을 보면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원근법적인 형태 묘사를 택하고, ㉡(피카소와 브라크)는 '전통적인 원근법의 관례'를 버렸다고 했으므로 설명이 바르지 않다.

19.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단어란 흔히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 가운데 분리하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정의한다. '오늘 작은언니는 새 옷을 입었다.'라는 문장에서 '오늘, 새, 옷'은 단어들이다. '작은언니'는 '작은'과 '언니'로 분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본래의 뜻과는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작은언니'는 한 단어이다. '입었다'는 '입-었-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 각각 홀로 쓰일 수 없고 세 단위가 모여서 하나의 자립 형식을 이루기 때문에 '입었다'는 그대로 한 단어가 된다.

그러나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작은언니는 옷을'의 '는, 을'과 같은 조사는 '작은언니, 옷'과 분리하여도 제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인다. 이런 까닭으로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어려움은 의존 명사에서도 볼 수 있다. '한 그루, 줄 것'의 '그루, 것'은 의존명사인데, 이들은 분리하는 가능하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서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의존 명사는 명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단어로 취급한다.

국어 단어는 그 형성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구름, 겨우, 먹다'처럼 단일한 요소가 곧 한 단어가 되는 경우이다. '구름, 겨우'와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일한 구성을 보이는 예들로서 이들은 단일어라고 한다. '먹다'는 어간 '먹-'에 어미 '-다'가 붙어 이루어진 구성이지만 '먹-'은 의존 형태소로서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으며, '-다'는 순수하게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어미로서 단어의 구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단일어와 구별하여 복합어라고 한다.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셋노랴다, 무덤, 잠'은 어휘 형태소인 '노랴다, 묻-, 자-'에 '셋-, -엄, -ㅁ'과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어휘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손목, 고무신, 빛나다, 날짐승'과 같은 단어는 각각 '손-목, 고무-신, 빛-나다, 날-짐승'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각각 어근인 어휘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로 이를 합성어라고 한다.

① '작은언니'는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② '는, 을'은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이므로 단어이다.

③ '그루, 것'은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④ '셋노랴다, 손목'은 복합어이다.

19 ② 비문학>주제와 소재>내용 확인하기

둘째 단락에서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이는 까닭으로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②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첫째 단락에서 단어란 최소의 자립 형식이고, '작은언니'는 한 단어라고 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둘째 단락에서, '그루, 것'은 의존명사인데,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의존명사는 명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단어로 취급한다'는 내용으로 알 수 있다.

④ 넷째 단락에서, 단어를 단일어와 복합어로 구별하고, 복합어를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구분하여, '셋노랴다'는 파생어, '손목'은 합성어라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 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2017. 12. 1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중략)...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2. 핵심 정리

1) 갈래 : 중편 소설, 연작소설

2) 배경 :

┌시간적 →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공간적 → 서울의 재개발지역 낙원구 행복동

3) 경향 : 사회 고발적, 사실주의적

4)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1, 2, 3부가 각각 영수, 영호, 영희의 시점에서 서술되어 서술자와 서술상황이 바뀌는 시점의 이동)

5) 특징 :

①이 작품은 동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동화적 모티프를 활용하고 있고, 사건이 진행되는 공간적 배경이 환상에 가깝다는 점에서 동화적 구성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을 난쟁이로 설정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인 동화적 구도와 비극적 삶의 부조화로 비극성 강화)

②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영수, 영호, 영희 등으로 서술자를 다양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단문을 주로 사용하여 독자들의 해석 여지를 넓혀 줌으로써 시적인 여운을 준다.

6) 문체 : 짧고 냉정한 단문형 문체로 비극성 심화

7) 주제 :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

3. 작품의 이해와 감상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들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동화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는데, '난쟁이'로 설정된 주인공, 환상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의 도입, 단문(短文) 중심의 문장 등이 이러한 성격을 형성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현실에서 상처를 입고 패배에 이르는 과정을 밟는 인물로 그려진다. 특히 주인공이 '난쟁이'로 설정된 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마련한 상징적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① ㉠ :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아버지'의 왜소함을 드러낸다.
- ② ㉡ : 가난한 도시 빈민의 힘겨운 삶을 전쟁에 비유한다.
- ③ ㉢ : 맹목적이고 무리한 산업화의 위압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 ④ ㉣ : 주민들의 노력으로 삶이 개선될 것임을 암시한다.

20 ④ 문학>현대문학>현대소설

㉢의 뒤 문장 내용을 보면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주민들의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 '난쟁이'는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도시 빈민, 도시 노동자를 상징한다. 작가는 중심인물을 '난쟁이'로 설정하고 있는데, '난쟁이'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 소외된 사람을 의미하며 거대 자본을 상징하는 '거인'과의 의미상 대립적 구조를 형성한다. 즉, '난쟁이 가족'을 통해 도시 빈민의 비극성을 드러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② ㉡ '전쟁'은 가난으로 인한 도시 빈민의 힘겨운 삶을 비유한다.
- ③ ㉢은 '난쟁이 가족'의 불행한 심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구절로서, 산업화의 위압적 분위기를 나타낸다.

※[문20]출전: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 해제: 이 작품은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쟁이 일가(一家)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으며, 그 바탕에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있음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